

대구방언의 억양구조의 변이요인

- 음향음성학적 분석 연구 -

김 선희(수원대)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억양의 변화요인 및 양상 |
| 2. 연구과정 | 3.1. 의문사 의문문의 억양특징 |
| 2.1. 연구방법 | 3.2. 구 경계의 위치에 따른 억양특징 |
| 2.2. 기본문장의 억양패턴 | 4. 결론 |

<Abstract>

Elements of characterizing intonation pattern of Taegu dialect

Seonhi Kim

The study on the intonational characteristics is concentrated on the lowering of the pitch level that is described as declination and downstep. The Taegu dialect, which has phonological accentual system, has these phonetic characteristics in affirmative sentences or Yes-No Question sentences. But there is the opposite phenomenon in WH Question sentences in Taegu dialect. When the accent of interrogative word in the sentence initial position is LHL, intonation pattern shows a continuous upward movement, indicating that intonation pattern of Taegu dialect is influenced by not only grammatical system but also accentual system.

1. 머리말

본 연구는 한국어 중에서 음운론적인 악센트 체계¹⁾를 가지고 있는 대구방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언어학적인 기능을 가지면서 단어에 고정되어 있는 악센트가, 단어보다 큰 언어 단위인 문법적 구(phrase)나 문구조(sentence)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는지, 또 이들이 문억양(intonation)²⁾구조의 형성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까지 음성언어의 음조 연구에서 관심이 높았던 것은, 음조의 하강현상에 관련되는 제 문제들이었다 (Poser, 1984; Pierrehumbert and Beckman, 1988). 이는 일반적인 문구조에서, 발화의 자연스런 하강현상(Declination)으로 설명되어지는 것과, 일정한 음운구조(악센트 유형)의 결합에 의해 피치가 하강하는 Downstep이나 Catathesis 등이다.

그런데 한국어의 대구방언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억양특징이 나타남과 동시에 특이한 억양구조 체계가 관찰된다. 이러한 억양 특징이 어떤 언어학적인 조건하에서 발생하며 그 양상은 어떤 것인지, 또한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억양구조의 변이는 일어나지 않는지에 관해서 밝혀 내하고자 한다.

2. 연구과정

본 논문에서는, 대구방언의 문구조에서 관찰되어지는 음조의 형상을 음향실험기기로 관찰하고, 개략적인 억양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주 목표로 삼고, 실제 F0값을 측정, 정량화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대구방언에 관련하여, 억양특징에 관한 음향음성학적인 분석과 또 그 변이형의 다양성에 관하여 언급한 연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악센트는 그 의미가 언어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에 의한 의미로 사용된다. Pike(1945)의 용어를 빌려, Pitch의 변별적 역할을 담당하는 범위에 따라, 중국어와 같은 Tone Language, 일본어와 같은 Pitch Language, 영어와 같은 Intonation Language 와 같이 분류된다. 한국어의 대구방언은 일본어와 같이 Pitch Language 에 속한다.
- 2) 억양이란 문중에서 관찰 대상이 되는 요소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나, 여기서는 단어보다 큰 언어 단위에서 나타나는 음의 높낮이의 변화양상을 가리킨다.

2.1. 연구방법

근래에 와서 음향음성분석기의 발달에 따라 음성언어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또 그 분석 대상의 범위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종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연구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음향음성분석기에 의한 실험결과에만 의존한 나머지, 청각적인 관찰이 결여되어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청각적인 판단과 아울러 실험데이터의 종합적인 분석이 무엇보다 유효하리라 본다.

본 과제에서는 실험 기기로서, Kay사의 CSL(Computerized Speech Lab) Model 4300을 주로 사용했다. 단어나 문의 음조변화를 가장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Kay사의 VISI-PITCH Model 6095도 사용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분절음의 포맷트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CSL에 의한 분석 자료를 활용했다.

실험 대상문은, 피험자인 대구토박이 30대 남녀 10명에게 실험문을 읽도록 하여, 녹음하고, 그것을 기계에 입력시켜 분석했다. 실험에서 피험자 모두에게 동일한 억양 패턴으로 나왔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같은 피험자의 발화에 있어서도 매번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방언에 관한 의식의 차로 또는 심리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전체의 경향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안정된 결과를 나타내 보이는 발화자의 실험데이터를 사용했다.

2.2. 기본문장³⁾의 억양특정

대구방언의 악센트 체계는, 金善姬(1996)의 연구결과, Haraguchi(1977)의 기본 음조 멜로디의 개념을 도입하여 해석하면, HL, LHL의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된다.

위에서 든 두 가지의 악센트 유형을 가진 단어들 중, 3음절어 ‘그립자’(HL)와 ‘민들래’(LHL)를 동일한 문 구조 내에 넣어서 발화하게 한다. 이는 악센트 유형에 따른 억양패턴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 구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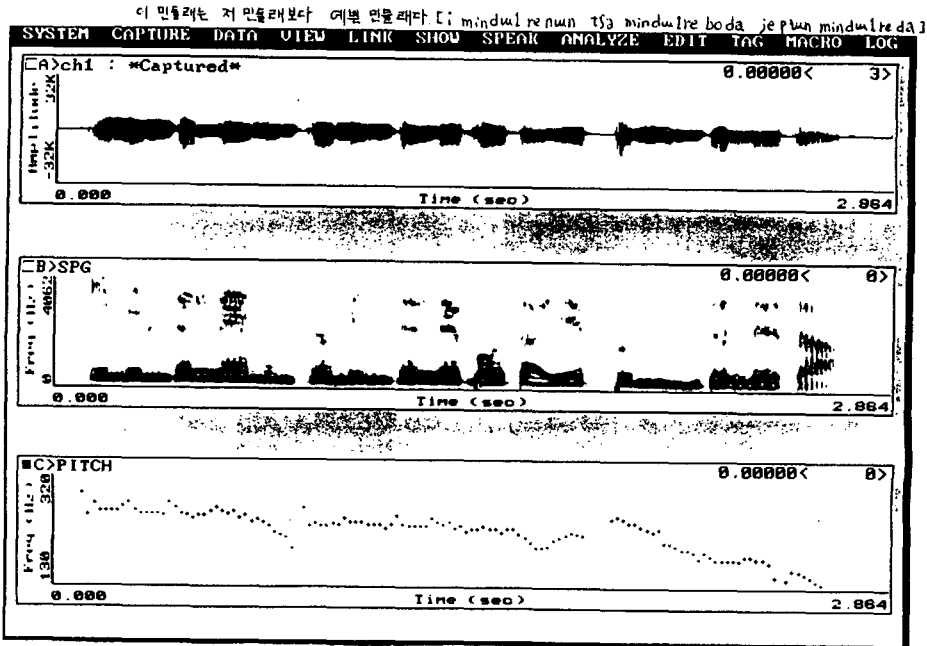
이.....는 저.....보다한다.

3) 여기에서 기본문장이란, 운율적 특징에 끼치는 조건이 비교적 단순하게 적용되는 문장을 의미한다. 즉, 문법적으로 비교적 단조로운 구조를 가지며, 강조 등과 같은 의미상의 특정조건이 부여되지 않고 또, 의미의 중복성을 지니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음성적인 측면에서 발화속도를 보통으로 유지하며, 구 경계에서 긴 휴지(Pause)를 주지 않는다. 휴지의 길이에 따라 음성적인 변화 특히 피치 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빈 곳 세 군데에, 위의 단어를 각각 한 문안에 삽입시킨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일한 단어에 대해 발화문의 시간적 위치 관계에 따른 피치변화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이 그림자는 저 그림자 보다 긴 그림자다.'의 파형과 억양패턴.



<그림 2> '이 민들레는 저 민들레보다 예쁜 민들레다.'의 파형과 억양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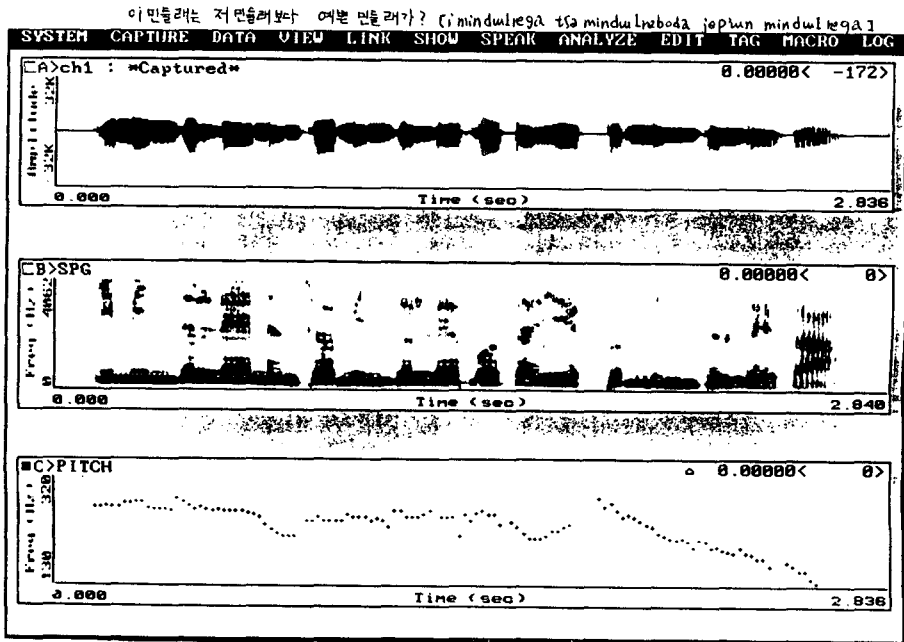
이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나타난 두 문의 억양패턴을 비교해 보면, 단어의 악센트 유형에 상관없이 문말로 갈수록 하강해 간다는 점에서 동일한 양상을 나타낸

다. 이러한 문말 하강조 현상은, 악센트가 음운기능을 가지지 않는 서울방언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Koo, 1986).

그런데 이들 두 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하강 패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은 한 개의 억양구(Intonational Phrase)에 악센트구(Accentual Phrase)는 세 개로 나타나며, 음성학적으로도, 하강조 악센트 유형의 단어의 영향으로, 그 하강 경사도가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반면 <그림 2>는 한 개의 억양구에 세 개의 악센트구로 분석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상승조 악센트를 가진 단어의 영향에 따라, 단어 내에서는 수평조(Continuation)로 나타나고 구말에서 하강해 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긴 발화단위에서 하강하려는 음성적 현상과, 음운론적으로 기능하는 단어 악센트의 상승조 패턴과 충돌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의 청각적인 인상에 의하면 오히려 적극적인 상승조 발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들린다. 일본어에 관한 연구로 藤崎(1989)가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문 억양은 말미로 갈수록 하강해 가므로 하나의 억양구를 형성하는데, 구 구조에서의 억양 변화도 마찬가지로 하강해 가나 음성학적으로 단어 악센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의문문을 관찰해 보자. 의문문에서는 문말에 오는 동사의 어미가 '다'대신 '가'로 교체된다.



<그림 3> '이 민들래는 저 민들래보다 예쁜 민들래가?'의 파형과 억양패턴.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면, 문법적 구조는 같으나 문말 어미만이 다른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거의 동일한 억양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의문문 문말의 상승조 패턴이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는다.⁴⁾

3. 억양의 변화요인 및 양상

위에서 문법적으로 단조로운 기본문장에 관하여 억양패턴을 관찰해 보았다. 여기서는 의문문의 한 유형인,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문을 중심으로 억양을 관찰하고, 구경계의 위치에 따라 의미의 중복 성을 띠게 되는 구조에서의 억양특징을 관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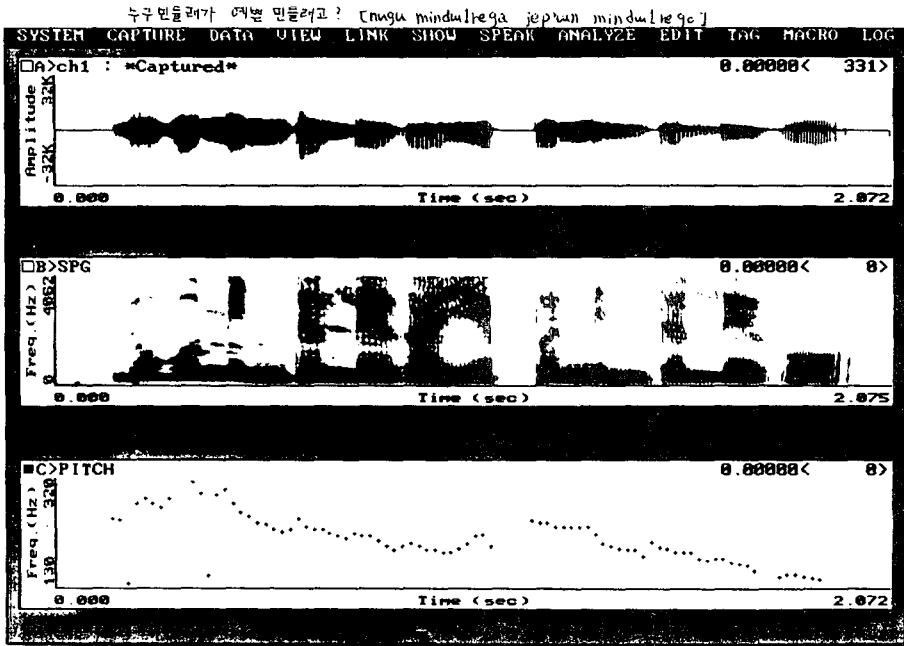
3.1. 의문사 의문문의 억양특징

앞에서 살펴본 의문문(구체적으로는 네·아니오 의문문)에서는, 의식적인 발화심리를 배제한다면 평서문과 마찬가지로의 하강조가 나타났다. 여기서는 의문사 의문문을 관찰한다.

악센트의 유형별로, HL형(누구)과 LHL형(어느)을 가지는 의문사가 문두에 위치하는 발화문을 대상으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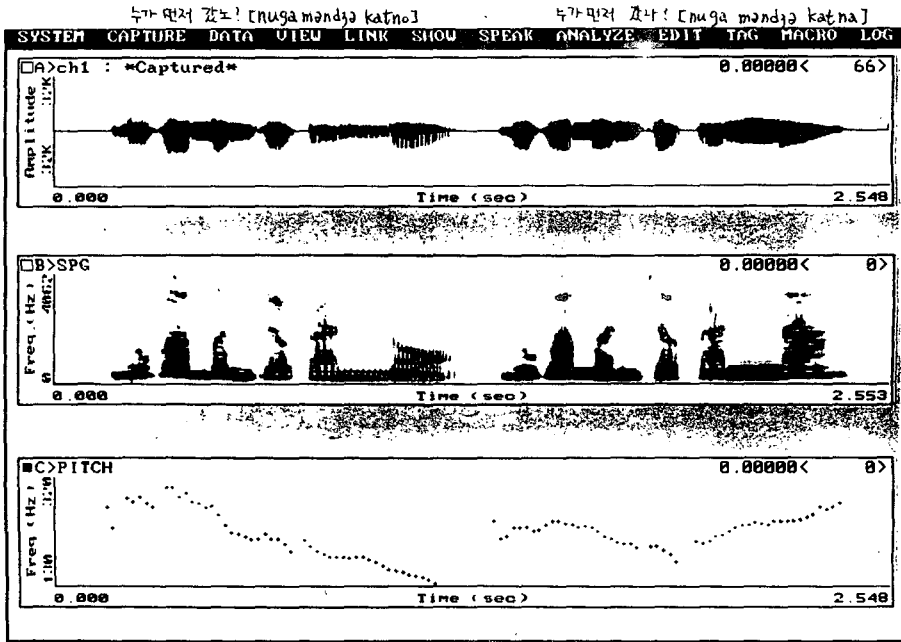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HL형인 의문사 ‘누구’가 문두에 오는 의문문에 있어서는 <그림 1, 2>에서 보였던 것처럼 기본문장의 억양패턴과 마찬가지로 하강조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면밀히 관찰해 보면, 의문사 부분이 특히 높은 피치로 나타남과 동시에 의문사의 뒤에 나타나는 요소들에 있어서 피치의 급강하 현상도 아울러 볼 수 있다. 이는 金善姬(1993)에서 관찰되어진 대구방언의 포커스(focus)문의 억양특징과 유사하다. 같은 현상이 일본어에서도 관찰되어진다(郡, 1989). 또한 前川(1991)에서 밝혀진 대로 일본어 동경방언의 의문사 의문문의 억양유형과도 닮아 있다. 그는 이러한 의문사 의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선택 의문문이 두 개의 악센트구(Accentual Phrase)를 가지는 것과는 달리,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문두의 의문사에 따라 문 전체가 하나의 악센트구를 형성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일본어에서는 억양구조의 변별에 있어서 문두 요소의 피치보다 술어부분의 피치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도 청취실험 결과로 밝히고 있다.

4) 대구방언에서 의문문의 문말 상승조 패턴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억양패턴에서 문말의 동사 어미가 하강했다가 상승되어 가는 현상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의식적으로 의문문의 억양패턴을 변별하고자 하는 발화자의 심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누구 민들레가 예쁜 민들레고?'의 파형과 억양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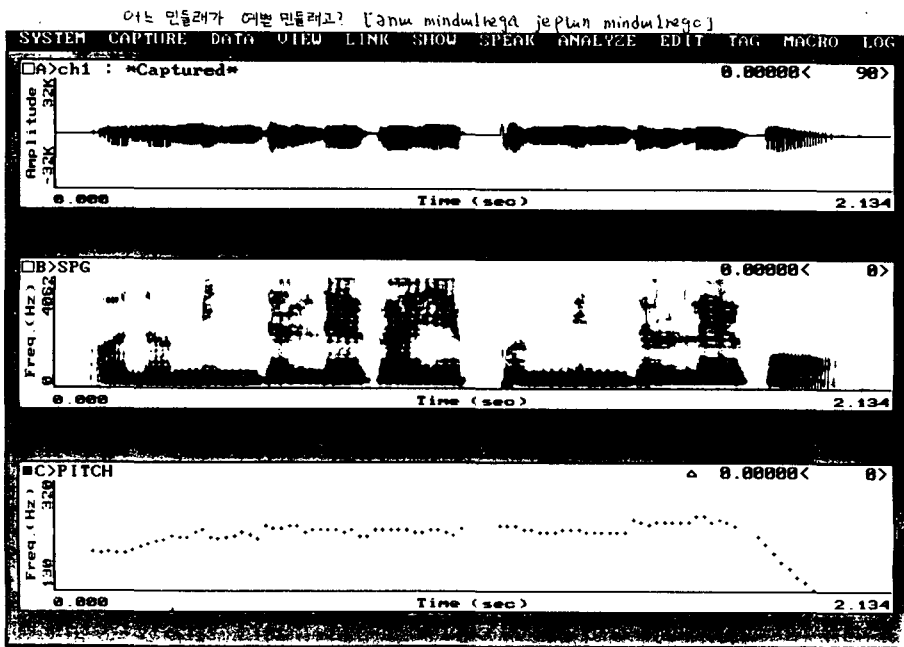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대구방언에서는 문두의 의문사가 전체의 억양구 형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 <그림 5>를 보자.



<그림 5> '누가 먼저 갔노?'와 '누가 먼저 갔나?'의 파형과 억양패턴.

‘누가 먼저 갔노?’는 의문사 의문문이고, ‘누가 먼저 갔나’는 네-아니오 의문문의 예이다. 이 때 앞에 제시된 문에서는 의문사(‘누가’ HL)가 포커스를 받는 예로 뒤 요소의 음조를 억제하고 있으며, 한 개의 억양구가 한 개의 악센트구로 형성되어 있다. 반면, 뒤에 제시된 문은, 두 개의 악센트 구로 나타나며 앞의 문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다음에는 LHL형 의문사 ‘어느’가 문두에 오는 의문문에서의 억양패턴을 관찰해보자.



<그림 6> ‘어느 민들레가 예쁜 민들레고?’의 파형과 억양패턴.

<그림 6>을 보면, ‘어느’에서 상승되어 가던 피치패턴이 문말까지 계속된다. 그 상승되어 가는 쪽은 상승조 단어를 삽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발화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설명되어진다. 어쨌든 상승되어 가던 억양패턴이 문말에서 하강하는데, 이때 문말에 오는 술어의 악센트에 따라 문말 억양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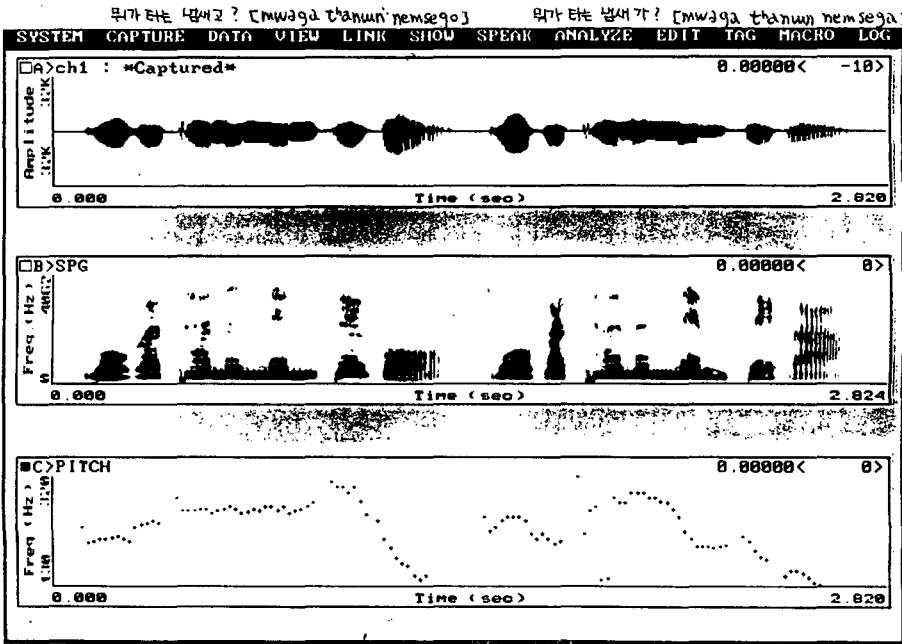
이러한 억양의 상승현상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 볼 때, 특이하며, 그 요인으로 는, (1)문두의 요소가 의문사라는 기능적인 측면과, (2)의문사 자체의 악센트 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하나의 발화단위(Utterance Unit)가 하나의 억양구(Intonational Phrase)로 발음된다는 점에서, HL형의 의문사문과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HL형 의문사가 문두에 와서 억양패턴을 상승시키고, 또한 발화단위가 한 개의 억양구로 형성되는 예를 <그림 7>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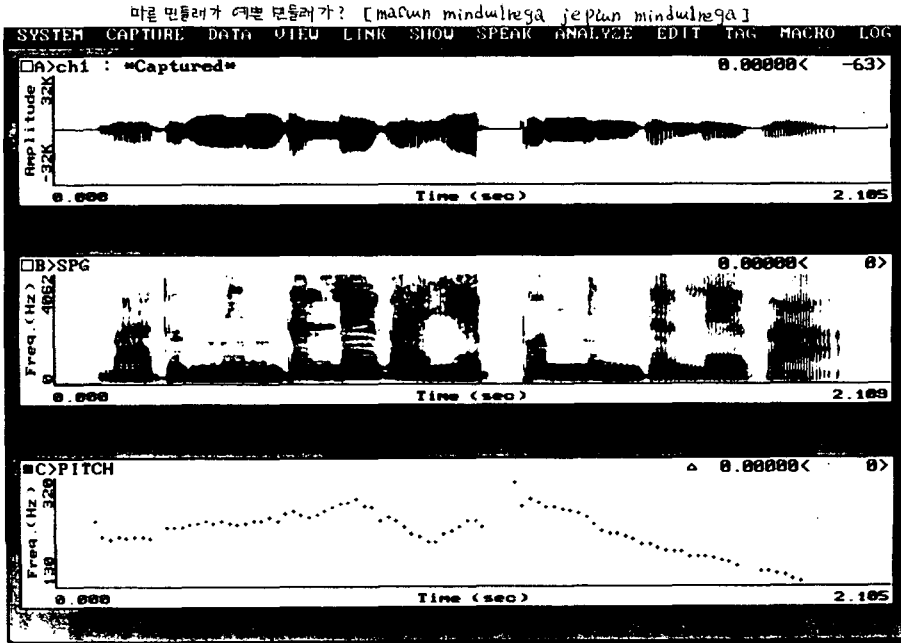
앞의 ‘뭐가 타는 뱀새고?’는 의문사 의문문이고, ‘뭐가 타는 뱀새가?’는 네-아니오 의문문의 예이다. 실험데이터를 보면, 앞 문에서 두 개의 악센트구가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뒷 문에서는 한 개의 억양구가 동시에 한 개의 악센트구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상승조 패턴이다.



<그림 7> ‘뭐가 타는 뱀새고?’와 ‘뭐가 타는 뱀새가?’의 파형과 억양패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두에 오는 요소의 악센트가 상승조라고 해서 모두 문 전체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의 예와 같이, 특별한 문법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 LHL형의 단어가 문두에 올 때에는 상승효과가 그 단어가 속해 있는 문법적 구(phrase)에까지만 미치기 때문이다. <그림 8>의 억양패턴이 이를 입증한다.

<그림 8>에서 보면, ‘마른(LH)이 ‘민들레’까지만 그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그 후의 요소는 하강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악센트구를 두 개 형성한다. 그런데 <그림 7>과 같은 상승조 패턴이 <그림 8>처럼 두 개의 악센트구로 발화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문 전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단순한 문의 길이와 관련되는 것인지, 다른 단어의 삽입에 의한 문법적 기능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폭넓은 연구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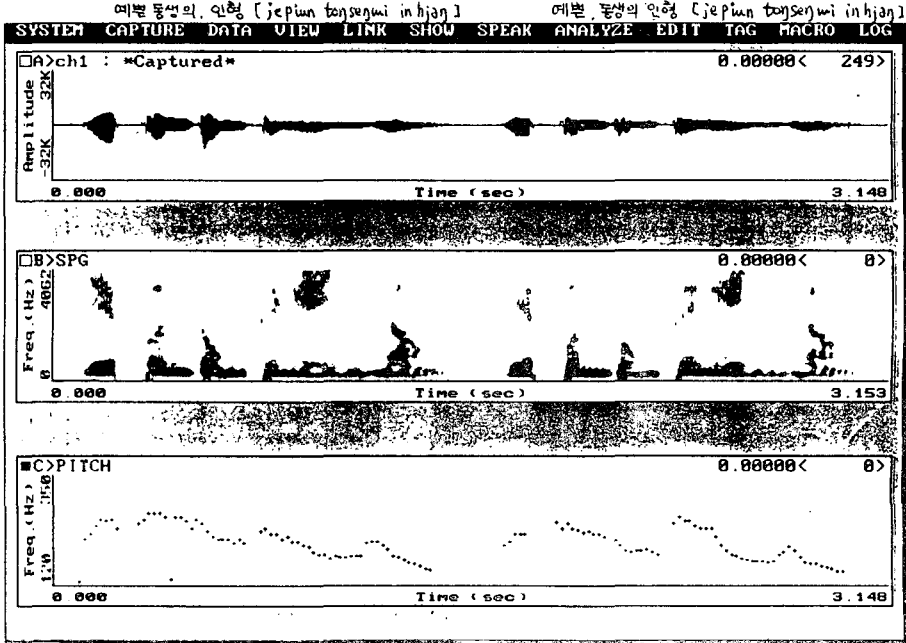
<그림 8> ‘마른 민들레가 예쁜 민들레가?’의 파형과 억양패턴.

3.2. 구 경계의 위치에 따른 억양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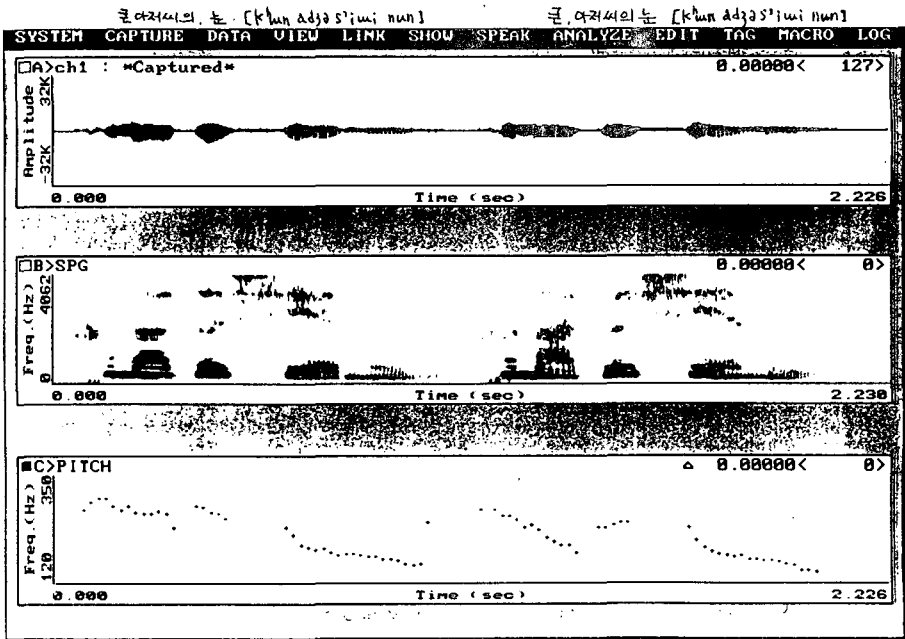
구 경계의 위치에 따른 억양구의 변화에 관하여, 일본어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가 눈에 띈다(藤崎,1989; Kubozono,1992).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구 경계란 문법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문법적인 구가 음조체계(즉Accental Phrase)와도 일치하는지에 관한 문제도 아울러 살펴본다.

<그림 9, 10>에서처럼 구의 경계가 뒤에 있을 때—즉, 구구조가 좌측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예쁜’ 과 ‘큰’ 이 각각 ‘동생’ 과 ‘아저씨’를 수식하는 경우—에 하나의 억양구로 형성되는 반면, 구의 경계가 앞에 있어서 우측으로 구조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즉, ‘예쁜’ 과 ‘큰’ 이 각각 마지막에 오는 요소 ‘인형’ 과 ‘눈’을 수식할 때—에는 악센트 구가 두 개로 나타난다. 이는 구의 경계가 우측에 있는 경우—즉, ‘예쁜 동생의

// 인형'과 '큰 아저씨의 // 눈'에서는 억양구를 일체화(dephrasing)하게 되므로, 이 역시 포커스문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그림 9> 예쁜 동생의 // 인형 예쁜 // 동생의 인형



<그림 10> 큰 아저씨의 // 눈 큰 // 아저씨의 눈

이상, 본 논문에서는 단지 억양패턴의 변이요인으로 예상되어지는 요소를 들어 사례를 제공하는 정도로 그친다. 더 복잡한 문법구조 또는 음운구조에 따라서도 억양구와 악센트구의 형성이 달라지리라 예상되므로(Jun,1993; 金善姬,1995), 앞으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4. 결 론

대구방언에서는 언어 일반적인 특징으로 밝혀진 문 구조의 하강현상이 나타나며, 동시에 의문사 의문문과 같은 특이한 문법구조 체계에서 억양이 상승되어 가는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것은 의문사 의문문의, 문두에 나타나는 의문사 악센트형에 따라 문말까지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문사 자체의 악센트 유형에 따른 것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동시에 의문사라는 특수한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요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 예로 비의문사 상승조 악센트를 가지는 단어가 문두에 올 때는 상승시키는 효과가 국소적이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또한 의문사에 따라 문 전체가 급하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것 역시 의문사라는 문법적 기능에 의한 현상이라는 것도 검증되었다. 즉 이러한 특징은 Focus 문과도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의문사라고 하는 문법적인 기능 그 자체가 의미적으로 강조되는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문법적 특징과 관련한 통사구조에 의해 억양구조가 달라진다는 유형을 보아 왔고, 이는 악센트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더욱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포커스가 놓인 문에서도 위와 같이 억양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 되므로 여기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金善姬(1994), 大邱方言の文中における語アクセントの現れかた、日本音声学会 全国大会研究発表論集、113-118、日本音声学会。
 _____(1995), 後続母音のピッチにおよぼす影響からみた子音の分類、朝鮮學報15 6、日本朝鮮学会。

- _____ (1996), 韓国語大邱方言の韻律の研究-音響音声学的観点からの分析、筑波大学 博士(言語学)学位論文。
- 郡史郎(1989), 強調とイントネーション、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2、316-342、明治書院
- 藤崎博也(1989), 日本語の音調の分析とモデル化、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2、明治書院
- 前川喜久雄(1990), 無アクセント方言のイントネーション(試論)、音声言語4、87-110、近畿音声言語研究会。
- _____ (1991), 東京方言疑問文のイントネーション、日本音声会全国大会研究発表論集、42-47、日本音声学会。
- _____ (1994), Is there dephrasing of the accentual phrase in Japanese, *OSU WPL*, 44.
- Kubozono, H.(1988), The organization of Japanese prosody, Ph.D. Diss., Univ. of Edinburgh.
- _____ (1992), 新しい音声音韻研究の展開、日本音響学会誌、48-1。
- Pierrehumbert, J. and Beckman, M.(1988), *Japanese Tone Structure*, MIT Press, Cambridge, MA.
- Haraguchi, S.(1977), The Tone Pattern of Japanese: An Autosegmental Theory of Tonology, Ph.D. Diss., M.I.T. (開拓社, 東京)
- Jun, S.-A.(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Ph.D. Diss., The Ohio State University.
- Koo, H. S.(1986), An Experimental Acoustic Study of the Phonetics of Intonation in Standard Korean, Ph.D. Dis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Pike, K. L.(1945), *Tone Languag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oser, W.(1984),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Tone and Intonation in Japanese, Ph.D. Diss., MIT.

접수일자: 1998년 12월 7일

게재결정: 1998년 12월 25일

▶ 김 선희 (Seonhi Kim)

주소: 경기도 화성군 와우리 산 2-2 수원대학교

소속: 수원대 일본어학과

전화: 0331) 220-2590